

보도시점 2024. 7. 16.(화) (배포 후 즉시) 배포 2024. 7. 16.(화)

## 환경부 차관 “장마전선 북상, 하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

- 이병화 환경부 차관, 논산시 일원 논산천 제방 응급조치 상황 점검
-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피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 총력 대응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7월 16일 오후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논산천 제방을 방문하여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제방 유실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상황과 유사 시 주민대피 체계 등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논산시 제방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사면부 일부가 유실되거나 하천수가 제방 안쪽으로 흐르는 누수(파이핑 현상)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형(톤)마대 설치, 방수포 보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주요 지점별 누적강수량(mm, 7월 7일 ~ 10일)

- 487.5(충남 부여), 445.5(전북 익산), 436(충남 서천), 420(충남 논산), 408(전북 군산)

한편 장마전선은 지난 7월 11일 남쪽으로 잠시 물러났으나, 7월 16일부터 다시 북상하여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병화 차관은 이날 점검에서 대형마대 설치와 방수포 보강 등의 응급조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1930~40년대 하상토로 처음 축조된 논산천 제방 같은 경우 토질 문제 등으로 누수(파이핑 현상)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라며,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약해진 제방관리를 신속하고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장마 기간 동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국가하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위험 상황을 즉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지자체가 주민대피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긴급 응급복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 남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 모든 홍수대응 기관에서 각자의 임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하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하천안전팀	책임자	과장	안상혁 (044-201-7531)
		담당자	사무관	이성주 (044-201-7538)
<협조>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	책임자	국장	이현준 (042-865-9100)
		담당자	과장	안종석 (042-865-9101)

